

중국 AI 슈퍼앱 전쟁의 서막

- 과거 모바일 생태계처럼 중국 빅테크들의 AI Agent 트래픽 확보 경쟁 본격화
- 시사점1: AI 슈퍼앱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른 플랫폼 지배력 경쟁 → 빅테크 옥석 가리기
- 시사점2: 중국 연산능력 병목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 → 확충 수요는 로컬 반도체 밸류체인에 유리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xuehua.cui@meritz.co.kr

춘절 앞두고 빅테크들의 AI 슈퍼앱 쟁탈전 시작

2026년은 전 세계적으로 'AI 응용의 원년'으로 불린다. 이에 맞춰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연초부터 일반 사용자(To C)를 선점하기 위한 과격적인 보조금 전쟁을 시작했다. 바이두(5억 위안), 텐센트(10억 위안), 알리바바(30억 위안)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AI 서비스 사용자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알리바바였다. 보조금 규모가 30억 위안(약 6,300억원)으로 타사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자사의 AI 에이전트인 '첸원(千问) APP' 설치 시 25위안(약 5,000원) 상당의 밀크티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출시 9시간 만에 1,000만건의 주문을 돌파했고, 앱 순위 1위에 등극했다. 단기간에 과도한 트래픽이 유입되며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고, 일부 시간대에 접속 지연과 중단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알리바바의 AI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표 1).

표1 중국 춘절(구정)을 앞두고 주요 빅테크들의 AI Agent 트래픽 확보 경쟁 이벤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AI Agent	첸원(千问)	위안바오(元宝)	원신(文心)
보조금 총액	30억 위안 (약 6,300억원)	10억 위안 (약 2,100억원)	5억 위안 (약 1,050억원)
핵심 캠페인	춘절 무료 택배기	AI 홍바오(세배돈)	AI 상호작용 카드 수집
이벤트 내용	AI 음성 주문시 25위안 밀크티/커피 쿠폰 증정	AI 기능 체험 시 현금 홍바오(세배돈) 지급	바이두 앱 내 AI 퀴즈 카드 수집을 통한 경품 및 현금 지급
성과	· 3시간 만에 100만건 주문 · 5시간 만에 500만건 주문 · 9시간 만에 1,000만건 돌파	· 위안바오앱 다운로드 순위 급등 · 위챗 채널 연동을 통한 소셜 공유 확산	· 바이두 AI 앱 재사용률(Retention) 제고
특이사항	트래픽 폭주로 시스템 일시 마비	위챗 홍바오 성공 모델 재현시도	유틸리티 넘어선 놀이 문화 정착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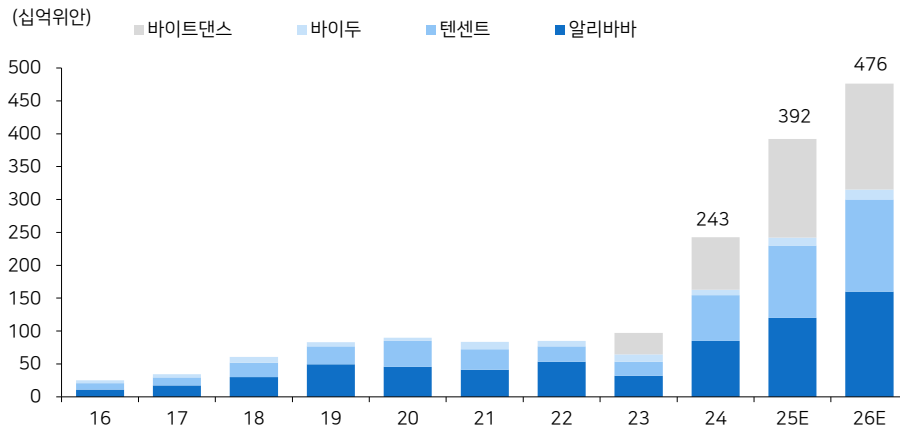
중국 투자에 주는 2가지 시사점

연초부터 달궈진 중국 빅테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서 두 가지 핵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과거와 달리 이번 AI 사용자 확보 경쟁은 빅테크들의 전반 수혜보다는 옥석 가리기로 연결될 것이다. 과거 중국은 모바일 인터넷 보급 초기에도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한 경험이 있다. 이번 AI Agent 확산 국면에서도 동일한 전략이 다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오프라인 소비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빅테크들이 오프라인 유통업자의 점유율을 대체함으로써 공동 수혜를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미 형성된 온라인 생태계 내부에서 AI 활용도를 둘러싼 빅테크 간 점유율 경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이번 경쟁에서는 모든 빅테크가 수혜를 받기보다는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막 경쟁이 시작된 단계인 만큼 앞으로 보조금과 마케팅 강도가 더 커질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경쟁 우위가 뚜렷하지 못한 기업은 중장기 사업 모델의 불확실성으로 프리미엄을 받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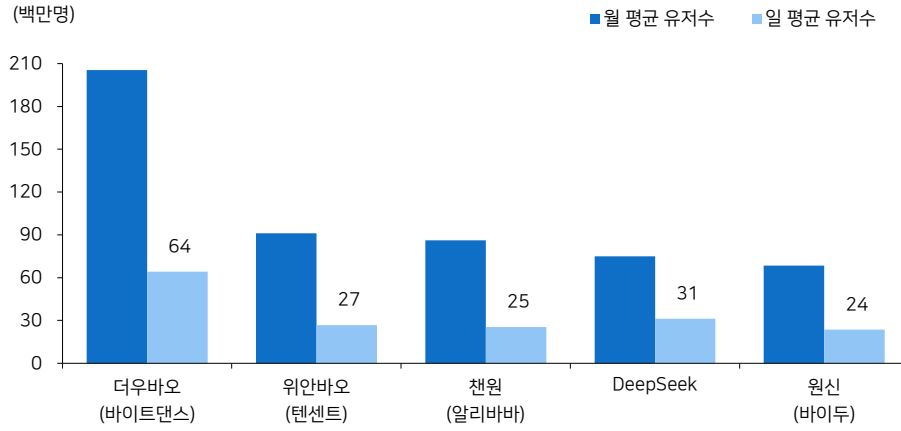
둘째, 중국 빅테크들의 연산능력(Capacity) 확충 수요가 여전히 크며, 이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유리하다. 알리바바의 보조금 이벤트 과정에서 짧은 시간 내 트래픽이 급증하며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은, 대규모 AI Agent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알리바바조차 이 정도라면, 다른 기업들의 연산 여력은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 빅테크들은 향후 AI 서비스 확장을 위해 연산능력 비축과 데이터센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림 1). 특히 해외 AI 칩 사용이 행정적·정책적으로 제한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국산 AI 반도체와 관련 밸류체인의 성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주가 조정 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산 반도체 산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다.

그림1 중국 빅테크들의 AI Capex 투자액 및 전망 추이



자료: Bloomberg, 현지 언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6년 1월 중국 AI 응용 앱 액티브 유저수 비교: 더우바오(바이트댄스) 1위



자료: Yiguan Analys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